

저출산 극복... 생애 전주기 설계 부산시, 공공산후조리 전격 지원

(2024년)

제4차 저출산 종합계획 수립 개인의 삶의 질 개선, 성평등 목표 건강한 출생 등 정책과제 7개 영역

부산시는 심각해지고 있는 저출산 현상에 대한 중장기적 대응을 위해 5개년(2021~2025년)의 '제4차 부산시 저출산 종합계획'을 수립했다고 2일 밝혔다.

이번 부산시의 저출산종합계획은 지난 달 정부가 발표한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과 연계해 부산의 특성을 반영한 것으로 지난 한 해 동안 관련 조사 및 연구, 시민의견 수렴,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와 실무협의 등을 통해 마련됐다.

이번 계획은 일을 전제로 생애를 설계하는 청년층의 욕구에 기반해 '함께 일하고 다 같이 키우는 행복도시 부산'을 비전으로 설정했다. 제3차 계획과 달리 목표를 '합계출산율 제고'에서 '개인의 삶의 질 개선 및 성 평등한 부산 실현'으로 전환해 ▲첫째 출생아부터 실질적 지원 확대 ▲영아기 집중 지원 ▲돌봄 서비스 등의 공공성 강화 ▲청

년층의 '일할·머물·기댈' 자리 지원 등 생애주기별 정책을 강화한 것이 특징이다.

이를 위해 부산시는 ▲건강한 출생 ▲행복한 돌봄 ▲희망찬 청년 ▲평등한 가족문화 ▲함께 일하는 직장 ▲안심·안전한 사회 ▲추진체계라는 7개 영역별 정책과제를 수행한다.

영역별 주요 사업으로는 먼저 모든 산모·영아의 '건강한 출생'을 위해 첫째부터 소득과 관계없이 공공 산후조리 서비스 전격 지원(2024년)하고 임신·출산 원스톱 '아가맘센터' 전 구·군 설치(2025년) 등을 추진한다.

'행복한 돌봄' 영역에서는 영아기 집중투자 및 부모 직접 양육 지원을 위해 현재 진행되고 있는 둘째 이후 자녀 출산지원금 등 비용지원을 올해까지 시행하고 내년부터는 정부계획에 맞춰 첫째부터 모든 아이에 대해 출생 시 200만원 상당의 바우처 및 영아수당을 지원한다. 또, 불가피하게 가정양육이 힘든 영아를 위해 어린이집 0세아 가치 키움반 운영하고 입원아동 간병돌봄 신설하며 다자녀 기준도 내년부터 점

진 완화할 방침이다.

'희망찬 청년'을 위해 ▲센텀2지구 도시첨단산업단지 조성 등 일자리 사업 장기 추진 ▲2025년까지 행복주택 7000여세대 공급 ▲신혼부부 1만 세대 전세자금 및 대출이자 지원 등으로 일할·머물·기댈 자리를 제공한다.

'평등한 가족문화' 확산을 위해 내년에는 중소기업체 남성 육아휴직 장려금 월 30만원을 지원하고 올해에는 구·군 육아아빠단을 신설 운영한다.

'함께 일하는 직장'을 위한 워라벨 기업육성 시스템 구축, 고용 평등로드맵·성평등 가이드라인 수립 등을 추진해 아이 낳아 키우기 좋은 직장 환경을 조성한다.

'안심·안전한 사회' 구성을 위해 올해 아동보호 전담인력을 확대하고 점차적으로 여성폭력방지종합지원센터 설치 등을 실시해 나갈 계획이다. 저출산 대응 정책 '추진체계' 강화를 위해 동남권 인구대책 협의체 및 시민정책 자문단 운영, 출산자금 신규적립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부산=허의원 기자 bsmorning@metroseoul.co.kr



'입춘' 알리는 나비

절기상 입춘을 하루 앞둔 2일 전남 함평군농업기술센터 유리온실에 형형색색의 나비들이 힘찬 날갯짓으로 봄을 재촉하고 있다.

/함평군

영양군 민원실에 투명마스크 비치

청각장애인과 원활한 의사소통 일한

영양군이 민원실을 방문하는 청각장애인의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해 군청 민원실에 입술이 보이는 립리딩 투명마스크를 비치했다고 2일 밝혔다.

청각장애인들은 보통 수어나 입모양, 얼굴표정을 읽으며 소통하는데 코로나19로 마스크를 착용하면서 의사소통 시 불편을 호소하고 있다.

이에 영양군은 민원실을 방문하는 청각장애인과 창구담당직원이 서로 입모양을 보며 의사소통할 수 있는 립리딩 투명마스크를 구입·비치하여 민원편의를 도모하였다.

오도창 영양군수는 "코로나 19 예방은 물론이고 앞으로도 청각장애인 등 사회적 배려 대상자들이 불편함 없는 민원실 환경 조성에 힘써 나가겠다"고 말했다.

/영양(경북)=김태우 기자 ktu3987@

경북도, 인구감소·저출생 극복 총력전

지난 10년간 인구 6만여명 감소 중장기 인구정책 기본계획 수립

경북도는 연초부터 인구감소에 따른 지방소멸위기가 현실화됨에 따라 인구감소와 저출생 극복을 위한 장기적인 마스터플랜 수립으로 인구감소 완화와 제도약을 위한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경상북도는 지난 10년간 인구가 6만여명이 줄어들었고 이미 2016년부터 사망자수가 출생자 수를 추월하면서 자연감소가 더욱 심각한 실정이며, 청년 인구수(19세~39세)는 2019년 대비 3만여 명이 감소하는 등 2013년 이후 아동수보다 노인수가 많은 역피라미드 인구구조가 지속되고 있다.

경북도는 작년 12월 정부의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발표와 함께 정책방향이 개인의 삶의 질 향상과 청년층, 부모의 정책제감도 제고를 위한 실효성 있는 정책추진으로 전환됐다.



경북도, 인구감소 완화와 제도약에 박차.

도는 부모와 아이가 행복한 젊은 경북 구현을 목표로 중장기적인 경상북도 인구정책 기본계획을 수립하기로 하고, 생애주기별 인구정책 마련을 통한 도민의 삶의 질 제고와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하여 지속발전 가능한 경북 구현의 토대를 마련할 계획이다.

아울러 정부의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의 차질없는 이행을 위해 2021년 경상북도 저출산·고령사회 시

행계획을 촘촘하고 실효성 있게 수립할 예정이다.

또한, 인구감소 완화와 도민체감형 인구정책 발굴을 위해 경상북도 인구정책 대토론회 경북인포럼을 구성·운영하고, 연구중심 도정 운영에 발맞추어 연구기관 및 대학과의 상시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경북 인구정책 방향 및 지역 맞춤형 신규과제 발굴에 적극 나설 계획이다.

/경북=김귀열 기자 gold6830112@

예천군, 14억 들여 '농식품 바우처' 추진

농식품부, 시범사업 공모 선정

예천군이 경상북도에서 유일하게 2021년 농림축산식품부 시범사업 공모에 선정돼 14억여 원을 투입해 지역 신선 농산물을 저소득 취약계층에게 공급하는 '농식품 바우처 사업'을 추진한다.

농식품 바우처 사업은 중위소득 50% 이하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에게 채소와 과일 등 농식품을 구입할 수 있도록 가구원 수에 따라 월 4만원에서 10만6천 원을 전자카드 형태 바우처로 12개월간 차등 지급한다.

매월 1일 카드 금액이 자동 충전돼

당월 말일까지 사용가능하나 사용하지 않은 금액은 이월되지 않으므로 반드시 기간 내에 사용해야 한다.

제공된 바우처 카드는 지역 내 농축협하나로마트, 로컬푸드 직매장 등에서 채소, 과일, 우유, 달걀 4개 품목에 한해 구입이 가능하고 거동불편자 등 편의를 위해 농산물꾸러미 배달서비스도 지원한다.

군은 이번 사업을 통해 취약계층들의 건강한 먹거리 접근성을 높이고 지역 농식품을 제공함으로써 농가들은 판로를 확보할 수 있어 소득까지 증대돼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예천(경북)=김귀열 기자 gold6830112@

광주은행-토스 '디지털 혁신금융' 맞손

토스 앱서 광주은행 계좌 알림서비스

광주은행은 2일 본점에서 ㈜비바리퍼블리카와 디지털 금융 신규 서비스 및 제휴 마케팅 활성화를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비바리퍼블리카는 금융 플랫폼 '토스(toss)'를 통해 혁신적인 핀테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회사로, 협약식에 참석한 송종욱 광주은행장과 이승건 ㈜비바리퍼블리카 대표는 이번 협약을 통해 디지털 금융 신규 서비스 및 제휴 마케팅 활성화를 위해 상호 협력하고, 핀테크 기술에 기반한 금융서비스 제공에 힘을 모으기로 했다.

이와 더불어 광주은행과 ㈜비바리퍼블리카는 전 은행권 최초로 토스 앱(APP)에서도 광주은행 입출금계좌에 대

한 거래내역을 알림 받을 수 있도록 서비스를 실시한다.

지난 2019년 9월에도 광주은행은 ㈜비바리퍼블리카와의 협약을 통해 제1 금융권 최초로 토스 앱(APP)을 통한 '모바일 대출금리비교서비스'를 실시한 바 있다.

시중은행과 비교해 한 박자 빠르게 핀테크업과의 협업에 빠른 결정을 보인 광주은행은 디지털 금융 환경 변화에 신속히 대응하여 고객유입 효과를 거둬오면서 핀테크 상생 모델 및 혁신 금융서비스를 이뤄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송종욱 광주은행장은 "디지털역량 강화를 통해 비대면채널 영업에 최적화된 혁신전략을 구축해 디지털 선도은행으로 거듭나겠다"고 말했다.

/광주=강성대 기자 ksd1008@

전남, 섬 주민 여객비 등에 154억 투입

여객선 탑승비용 최대 88% 지원

전라남도도는 정주 여건이 열악한 섬 지역 주민들을 위해 여객 및 차량 운임과 생활품 물류비, 생활연료 운송비용 총 154억 원을 지원키로 했다.

전라남도도에 따르면 여객선 운임 지원사업은 섬 주민이 여객선을 탑승할

때 최소 50%에서 최대 88%까지 운임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목표, 완도, 여수 등 7개 시·군 122개 섬 주민들에게 100억 원의 사업비가 투입된다.

지원금은 여객운임에 따라 구분돼 운임 8340원 미만의 경우 50%를 지원한다. 이와 함께 8340원 이상에서 3만원 이하, 3만원 초과 5만원 이하, 5만원 초

과 등으로 구간을 나눠 도서민들이 각각 5000원, 6000원, 7000원만 부담하면 나머지를 지원받을 수 있다.

또 도서민이 여객선에 차량을 싣고 갈 경우 배수량에 따라 최소 20%에서 최대 50%까지 차량 선적 운임을 지원하기 위해 37억 원을 편성했다. 1000cc미만 승용차와 5t미만 화물차는 선적운임의 50%를 1600cc미만은 30%, 2500cc미만 승용차 및 15인 이하 승합차는 20%를 각각 지원받을 수 있다.

/전남=양수영 기자 ysn6313@